

라오스(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面積	23.6만 km ²	貨幣單位	Kip
人口(1999)	5.3백만 명	환율(2000년말)	8,218/USD
GDP(1999/2000)	1,709백만 달러	會計年度	10. 1~ 9. 30
1人當GDP(1999/2000)	322달러		

I. 國內經濟

단위 : %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e	2001f
경제성장률	6.9	6.9	3.9	7.3	5.7	5.7
재정수지/GDP	-5.3	-6.0	-5.3	-	-	-
소비자물가상승률	13.0	27.5	91.0	128.5	25.1	8.0

□ 전통적 농업국가

- 라오스는 산악지형국가로서 전국토의 5%만이 농업이 가능하나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농업부문에서 창출하고 있는 전통적인 농업국가로 농·임업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2%(1999년 기준)에 이릅니다.
- 주요 재배작물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작물은 쌀로서 비옥한 메콩강 유역의 범람원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으며, 전체 농작물 수확량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75%에 달함. 이외에 옥수수, 커피, 사탕수수, 담배, 땅콩 등이 주요 재배작물임.
-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현재의 생계형 농업에서 상업형 농업으로 전환을 도모하고, 기존의 화전방식의 농업을 지양하고 다양한 환금작물의 재배를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계획임.
- 농업이외에 산업부문(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의 GDP대비 비중은 '99년 현재 22%를 차지하고 있고 주요 제조관련 업종은 의류, 식품가공, 단순조립관련업종 등이 해당됨.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9년 기준 25%이며 주요부문은 도소매관련 교역분야임.

□ 세계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급격한 경기회복은 다소 어려울 듯

- 1991~1995년 사이에 제조업부문의 성장률이 14%를 기록하였으나 아시아 경제위기이후 주요 투자국이었던 태국의 투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주변국의 수

요가 위축됨에 따라 1996~2000년사이의 제조업부문의 성장률은 8%를 기록하는데 그쳤으며 이러한 상황은 세계경기가 회복되는 시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홍수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작황이 예상외로 좋음에 따라 안정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2000년 중 약 5.7% 정도의 경제성장을 이룬 것으로 추정되며, 올해의 경우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5.7%의 경제성장률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는 농산물 작황이 좋고 민간 및 공공부문의 투자가 증대될 경우에 한해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보임.

□ 물가 진정국면

- 아시아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98/99년 128.5%의 급격한 상승을 나타냈으나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긴축재정 및 통화억제정책을 실시함으로써 1999/2000년 25.08%로 다소 진정국면에 접어들었고 2000/2001년에는 8%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차츰 안정을 찾아가고 있음.

□ 긴축적인 재정·통화정책 유지 및 재정수입 확대방안 수립

- '98, '99년의 대규모 재정적자 이후, 물가와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긴축재정·통화억제정책을 운용하고 있음.
- 재정확충을 위하여 재정지출 억제이외에 다음의 방식을 통해 재정수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2003년까지 부가가치세 제도를 도입
 - 관세부과시 기준이 되는 환율의 시장환율과의 괴리를 5% 이내에서 유지함으로써 현행 관세부과 기준환율이 시장환율보다 상대적으로 낮음으로써 발생하는 세수 탈루분을 줄여나감.
 - 맥주, 담배, 청량음료, 알콜음료 등에 대한 소비세 인상
 - 외국인 투자법상 각종 세금공제조항 축소
 - 현재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요금을 받음으로써 지속적인 손실이 나고 있는 전력, 석유 및 항공부문 공기업에 대해 요금의 가격현실화를 통해 적자를 줄여나감

□ 관광부문 육성추진

- 1994년이후 외국인 방문객의 여행이 몇몇 제한된 지역을 제외하고 개방되었고 라오스 정부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99년부터 사증과 관련하여 라오스에

- 입국하여 미화 30달러를 지불하면 사증이 현지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련의 제도를 정비하였음. 이러한 노력에 따라 방문객 수가 '94년 15만 명 수준에서 '99년 61만 명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아울러 관광수입도 '98년에 78.9백만 달러를 기록해 '95년에 비해 4배정도 증가함으로써 사상 처음으로 관광수입이 의류 및 전자제품 수출을 통한 수입을 초과하였음.
- 그러나, 최근 일련의 폭탄테러로 인한 치안불안 및 호텔 및 기타 관광부대시설의 미비 등이 라오스 관광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음.

II. 國際經濟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e	2001f
경 상 수 지	-347	-306	-150	-121		
경상수지/GDP	-18.7	-17.5	-11.7	-8.4	-1.6	-3.1
상 품 수 지	-321	-283	-165	-190		
수 출	323	318	342	338		
수 입	644	601	507	528		
외환보유고	165	112	117	101	139	
총외채잔액	2,263	2,320	2,437	2,527		
총외채잔액/GNP	121.3	136.1	199.1	181.4		
D. S. R.	6.7	6.4	6.3	7.7	9.2	9.7

□ 경상수지 적자 지속예상

- 아시아경제위기 여파로 1997년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GDP의 17.5%를 기록한 이래 수입억제와 수출증대노력으로 점차 개선되어 2000년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GDP대비 1.6%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상품수지의 경우 적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단기간 동안은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정부는 국채의 발행보다는 외국원조에 의존해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할 계획임.
- 아시아 경제위기이전 라오스 수력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의 80% 이상이 태국으로 수출되었으나, 태국의 경제위기이후 전력수요 감소로 전력수출의 둔화가 예상됨.

□ kip화의 완만한 평가절하 가능성

- 지난 4년간 미달러에 대한 kip화의 가치는 90%가량 폭락(1996년 말 935 ki → 1999년 8월 9,350 kip)하였으나 정부의 긴축재정 및 통화억제정책 등에 힘입어 금년 5월경에는 달러당 7,500~7,800 kip 사이에서 비교적 안정을 유지해 오고 있으나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의 적자폭 확대예상 및 아직 취약한 외환보유고 등으로 인하여 완만한 평가절하의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임.

□ 외환보유고 다소 회복

- 아시아 경제위기이후 외환보유액은 계속 감소하여 1999년 말 101.2백만 달러 까지 외환보유고가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2000년부터 점차 외환보유고가 확충되어 2000년말 기준 139백만 달러규모로 다소 증가하였음. 2001년 목표 외환보유고는 152백만달러로 이는 2.5개월분의 수입규모에 해당되나 아직 다소 불안한 수준임.

□ 국제신인도

- 외부원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체질이나 최근 대외채무조정을 경험한 바는 없음.

□ IMF로부터의 신규자금지원 재개

- 1996년 정부와 IMF간의 재정적자관련 재원마련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지원이 중단된 이래, IMF는 금년 4월 23일자로 빈곤퇴치 및 성장차관 31.7백만 SDR(40.2백만 달러상당)의 지원을 승인하고 1차 인출분 4.53백만 SDR을 곧 지원할 예정임. 동 차관은 라오스앞 할당된 쿼터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7번에 걸쳐 반년마다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임. 동 자금의 지원은 거시경제의 안정 및 빈곤감소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의 달성을 위해 통화 및 재정 관련 정책의 제한과 함께 정부소유 상업은행의 개혁 및 민간부문 활동의 활성화 및 재정수입 증가를 요구하고 있음.

□ 대외지급능력

-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적자 지속으로 조속한 외환부족현상의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Ⅲ. 政治·社會

□ 군과 당의 독점

- 라오스의 현대통령 Khamtai Siphandon, 수상 Bounyang Vorachit 등 국가 지도자들이 모두 군부 출신이며, 라오스인민혁명당의 정치국원 11명 중에서 7명이 군부 출신일 정도로 이 나라 정부는 군인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
- 경제개방으로 인한 이익의 대부분이 군부와 정부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 상황임.

□ 급격한 개혁은 없을 듯

- 올해 3월에 5년만에 개최된 인민혁명당의 제7차 전당대회에서 정치국원 9명 중 8명이 유임되고 3명의 신임 정치국원이 선출되어 정치국원의 수가 11명으로 늘어났으며, 중앙상임위원회는 새로이 12명을 선출됨에 따라 중앙상임위원의 수도 49명에서 53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음. 대부분의 인사가 유임된 바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개혁보다는 기존정권의 유지에 정책의 비중을 둘 것으로 보임.

□ 정치·사회적 불만 누적

- 1999년 말까지 정부에 대한 반정부활동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99년 10월 Dong Dok 국립대학 소속 교수와 대학생이 주축이 되어 반정부시위가 일어난 이후 작년 3월부터 일련의 폭탄테러가 발생하였음. 금년 1월 태국과 라오스의 국경을 연결하는 메콩강 유역 우정의 다리에서 발생한 폭탄테러가 가장 최근의 사건이며 아직 폭과주체나 동기는 밝혀지지 않고 있음.
- 1999년 10월의 학생시위 이후 반정부 시위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물가급등 등 경제난 심화, 비민주적 정치체제, 개혁부진 등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잠재해 있음.

□ 주변국과의 관계

- 1997년 7월 ASEAN에 가입하였으며, WTO가입 및 미국과의 무역정상화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나 미국이 인권문제를 이유로 '99년 쌍무 무역협정을 체결한 이후 더 이상 협상을 진전시키지 않아 아직 라오스에 대한 최혜국대우

(Normal Trade Relations)지위가 부여되고 있지 않은 등 완전한 무역정상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태국과는 빈번한 국경문제로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크게 의존하는 관계임.
- 정치적으로는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및 중국 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 지도자급 인사들의 상호 방문이 자주 일어나고 있음.

□ 주요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Euromoney : 161/184('00. 9) ⇒ 148/185('01. 3)
- S&P, Moody's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미평가국.